

#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정문자(Moon Ja Chung)<sup>1)</sup>

김문정(Moon Jeong Kim)<sup>2)</sup>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s was studied in 359 fourth graders. Children reported on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s with the Childrearing Behavior Questionnaire (Park, 1995) and on their own behavior with the Korean Youth Self-Report (K-YSR; Oh, Lee, Hong, & Hah, 1997).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girls viewed their fathers and mothers as more warm/accepting and their fathers as less rejecting/restricting than boys. Boys had more externalizing (aggressive/delinquent) behavior problems than girls.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perceptions of paternal and maternal rejection/restriction and permissive/non-interfering. The relationship was differed as a function of child's sex.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perceptions of paternal and maternal rejection/restriction and paternal permissive/non-interfering. The relationship was differed as a function of child's sex.

**Key Words** : 온정 · 수용 양육행동(warm/accepting childrearing behavior), 허용 · 방임 양육행동(permissive/non-interfering childrearing behavior), 거부 · 제재 양육행동(rejecting/restricting childrearing behavior), 내면화 행동문제(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외현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up>1)</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sup>2)</sup> 선릉 삼성어린이집 교사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 Chung, Department of Child and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 mjchung@yonsei.ac.kr

## I. 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아동들의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는 발달병리나 임상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한 반의 10% 정도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를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가 특수한 정신적 이상이나 발달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정상아동들에게도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tterson, Babara, DeBaryshe와 Ramsey(1989)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발달적 과정 모델에 따르면, 초기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중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학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러 비정상적인 또래집단에 가입하게 되면서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어린 연령에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 정상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부적응행동에 대해 조사한 김형호(1978)는 아동이 행동문제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무관심과 결손가정 그리고 그릇된 양육행동에 있다고 하였다. Webster-Stratton과 Herbert(1994)는 아동이 행동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원인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방식에 있다고 하였으며, Hallahan과 Kauffman(1978)도 정서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게 되는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

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격, 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부모가 수용적·애정적·자율적일 경우 아동은 능동적, 독립적, 사교적, 창의적이며(Becker, 1964; Hurlock, 1978), 부모가 거부적·통제적일 경우 아동은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이 되며(박영미, 1996; 유안진·서봉연, 1982), 부모가 과잉보호를 할 경우 아동은 의존적이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유안진·서봉연, 1982; 1973).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 성격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머니의 환경이 아동의 지적발달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고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면서 부모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양책임을 주로 맡고 어머니가 가사담당과 아동양육의 책임을 주로 진다는 근본적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자녀양육을 아버지도 분담해야 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이 대두된 것이다(김은경·유가효, 2002).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부모는 동성의 자녀보다 이성의 자녀를 더 관대하게 다룬다는 연구들이 있다(Rothbarth & Maccoby, 1966; Baumrind, 1971; Noller, 1980). 자녀의 입장에서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Armentrout & Burger, 1972; 문경주·오경자,

2002; 오성심·이종승, 198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아보다 여아의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부적응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주·오경자, 2002; 박영미, 1996).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딸보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hnson & O'Leary, 1987; Verlaan & Schwartzwan, 2002). 그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도현심, 2001; 문경주·오경자, 2002; 박영미, 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지적하고 있다. Achenbach(1991)는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를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에는 우울, 불안, 위축 등 과잉통제된 행동이 포함되며,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과소통제된 행동이 포함된다. 국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박영미, 1996)와 부모의 낮은 애정과 과잉간섭(문경주·오경자, 2002; 오동재·전성일·장환일, 1993)은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신체적 처벌(김민정·도현심, 2001), 아버지의 낮은 애정과 성취지향적 태도(김은경·유가효, 2002), 강압적 양육행동(박성연, 2002), 거부적·통제적 태도(박영미, 1996; 이양순, 1988)는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에는 부모보고에 의해 양육행동을 측정 한 연구(김민정·도현심, 2001)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Smetana(1995)는 부모 자신이 보고한 양육행동이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 자신이 보고한 양육행동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을 더 잘 예측한다(Gecas & Schwalbe, 1986; 박영애, 1995)는 선행연구들이 있고, 최근의 인지모델에서 제안되었듯이 실제 양육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및 표상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문경주·오경자, 2002)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부모보고가 아닌 아동보고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이 다르며,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그리고 아동의 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세 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아동 181명(남아 89명, 여아 92명)과 부산시 소재 두 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아동 178명(남아 100명, 여아 78명)으로 총 359명(남아 189명, 여아 17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후기의 아동이 청소년기의 아동보다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 연구(예; 문미영, 2001)와 질문지 응답가능 연령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및 대상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구성은 남아가 52.6%, 여아가 47.4%였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부모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46.3%; 57.9%)과 대졸(32.6%; 28.7%)이 많았다. 부모의 직업으로, 아버지는 사무직(40.1%)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27.6%)의 순서였다. 어머니의 경우, 주부(61.8%)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14.5%)이었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30.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대(23.5%), 300만원대(18.9%)이었다.

### 2. 연구 도구

#### 1)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수용 행동, 허용·방임 행동, 거부·제재 행동의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응답하기에 문항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하위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10문항씩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사각회전 적용)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모두에 대해 박영애(1995) 도구의 세 하위 영역이 확인되었다. 본 척도는 아동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도구전체에 대해서는 .72였고, 하위 요인에 따라 .69~.88이었으며,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도구전체에 대해서는 .80이었고, 하위 요인에 따라 .76~.90이었다.

각 하위요인의 행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정·수용 행동에는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와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허용·방임 행동에는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이 포함된다. 그리고 거부·제재 행동에는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감정적 혼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침해적 개입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 2)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 (1983),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의 자기보고형(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을 사용하였다. K-YSR의 119문항 중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은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6문항이며, 이 중 위축과 우울·불안 영역에 공통된 한 개 문항이 있어 내면화 행동문제는 총 31문항이다.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의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K-YSR의 각 문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YSR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도구 전체에 대해서는 .89였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내면화 행동문제는 .86, 외현화 행동문제는 .81, 위축 .68, 신체증상 .72, 우울·불안 .81, 비행 .52, 공격성 .77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에 대한 아동의 이해정도,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을 수정한 후 이를 2차 예비조사에서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소재 세 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아동 181명과 부산시 소재 두 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아동 178명으로 총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실시와 수거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부탁하였다. 아동 부모의 인구학적 정보에 대한 질문지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430부 중 366부가 회수(85%)되었는데, 본 연구의 특성 상 양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질문지에 대한 응답정도가 충분한 아동 359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일반적 경향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하였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간의 관계와 이에 대한 아동 성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을 1단계에, 양육행동과 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2단계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차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수용 행동, 거부·제재 행동, 허용·방임 행동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의 부모양육행동을 함께 분석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 아버지의 온정·수용 행동과 거부·제재 행동( $t=-2.32, p<.05; t=3.56, p<.001$ ) 및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 $t=-1.98, p<.05$ )에 대한 지각에서 남아와 여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

<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변인	통계치		남(n=189)		여 (n=17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양육행동							
온정·수용	29.81	7.18	31.52	6.76			-2.32*
거부·제재	17.42	5.82	15.40	4.85			3.56***
허용·방임	18.97	4.93	19.60	5.42			-1.14
모양육행동							
온정·수용	31.14	7.44	32.68	7.13			-1.98*
거부·제재	18.15	6.42	17.28	6.28			1.28
허용·방임	17.17	5.28	17.72	5.44			-.96

\* $p<.05$ , \*\*\* $p<.001$

육행동을 남아보다 더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하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덜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성에 따른 행동문제 차이

아동 자신이 보고한 행동문제는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면화 행동문제는 위축, 신체증상 및 우울·불안으로 구성되며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과 공격성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행동문제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행동문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의 아동 행동문제를 함께 분석하였다. 행동문제의 각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가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 $t=4.22, p<.001$ )과 공격성( $t=3.70, p<.001$ ),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 총점

<표 2> 아동의 행동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N=359)

변인	통계치		남(n=189)		여 (n=17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면화 행동문제							
위축	3.52	2.61	3.56	2.63			-.14
신체증상	3.90	2.86	3.85	3.09			.14
우울·불안	8.17	4.91	8.56	5.70			-.69
총점	15.12	8.22	15.37	9.00			-.26
외현화 행동문제							
비행	2.79	1.98	1.99	1.57			4.22***
공격성	11.17	5.23	9.25	4.55			3.70***
총점	13.97	6.53	11.24	5.55			4.28***

\*\*\* $p<.001$

( $t=4.28,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남아는 여아보다 비행과 공격성을 더 보이며 결과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면화 행동문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보고한 아동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을 1단계에, 양육행동과 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2단계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변인들간의 상관성이 .01~.55로 나타났고,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수용 행동과 거부·제재 행동에서 아버지 양육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성이 .50이상으로 나왔다.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시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자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인들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들을 나누어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외에 아동 부모의 학력 또는 월가계수입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동 부모의 학력과 월가계수입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 부모의 학력과 월가계수입은 아동의 행동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각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성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아동의 성과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아동의 성과 부모양육행동 각 하위영역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행동 중에서 거부·제재 행동( $\beta=.24$ )과 허용·방임 행동( $\beta=.24$ )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2단계에서 아동의 성과 부모양육행동 각 하위영역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거부·제재 행동( $\beta=.28$ )과 허용·방임 행동( $\beta=.24$ )은 계속 유의하였다. 하지만 양육행동의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영역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15% 설명해주었다.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행동 중에서 온정·수용 행동( $\beta=-.11$ ), 거부·제재 행동( $\beta=.31$ ), 허용·방임 행동( $\beta=.11$ ) 모두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2단계에서 아동의 성과 부모

양육행동 각 하위영역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후에는 거부·제재 행동( $\beta=.34$ ), 허용·방임 행동( $\beta=.12$ )만 유의하였다. 또한 양육행동의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은 성과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내면화 행동문제와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17% 설명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과 내면화 행동문제와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

<표 3>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N=359)	
		종속변인	내면화 행동문제
			1단계    2단계
독립변인		$\beta$	$\beta$
아버지	성	.05	.06
	은정·수용	-.05	-.02
	거부·제재	.24***	.28***
	허용·방임	.24***	.24***
	성×은정·수용		-.09
	성×거부·제재		-.11
	성×허용·방임		-.08
	$\Delta R^2$	.13***	.02*
	전체 R <sup>2</sup>		.15*
	어머니	성	.04
은정·수용		-.11*	-.08
거부·제재		.31***	.34***
허용·방임		.11*	.12*
성×은정·수용			-.01
성×거부·제재			-.07
성×허용·방임			-.14**
$\Delta R^2$		.14***	.03**
전체 R <sup>2</sup>			.17**

\* $p<.05$ , \*\* $p<.01$ , \*\*\* $p<.001$

<표 4> 성에 따른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의 관계

상관변인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남아(N=189)	$\beta = -.01$
여아(N=170)	$\beta = .26^{**}$

\*\*  $p<.01$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 집단별로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의 회귀계수( $\beta$ )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각 집단별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아 집단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과 내면화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각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성의 증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아동의 성과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아동의 성과 부모양육행동 각 하위영역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 성의 유의한 효과(아버지  $\beta=-.18$ , 어머니  $\beta=-.20$ )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행동 중에서 거부·제재 행동( $\beta=.22$ )과 허용·방임 행동( $\beta=.13$ )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2단계에서 양육행동의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영역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13% 설명하였다.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양육행동 중에서 거부·제재 행동( $\beta=.22$ )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2단계에서 아동의 성과 부모양육행동 각 하위영역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거부·제재 행동( $\beta=.25$ )은 계속 유의하였다. 또한 양육행동의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 및 허용·방임 행동은 성과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 및 허용·방임 행동과 외현화 행동문제와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15% 설명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 및 허용·방임 행동과 외현화 행동문제와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 집단별로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 허용·

<표 5>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N=359)

종속변인	외현화 행동문제	
	1단계 $\beta$	2단계 $\beta$
독립변인		
성	-.18***	-.18***
온정·수용	-.07	-.06
거부·제재	.22***	.22***
허용·방임	.13*	.13*
아버지		
성×온정·수용		-.05
성×거부·제재		.01
성×허용·방임		-.07
$\Delta R^2$	.13***	.01
전체 R <sup>2</sup>		.14
성	-.20***	-.20***
온정·수용	-.07	-.04
거부·제재	.22***	.25***
허용·방임	.06	.07
어머니		
성×온정·수용		-.13*
성×거부·제재		-.01
성×허용·방임		-.11*
$\Delta R^2$	.12***	.03**
전체 R <sup>2</sup>		.15**

\* $p<.05$ , \*\* $p<.01$ , \*\*\* $p<.001$

방임 행동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각 집단별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 집단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 외현화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여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아 집단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외현화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 성에 따른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 허용·방임 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의 관계

상관변인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아동의 성		
남아(N=189)	$\beta = -.23^{**}$	$\beta = -.04$
여아(N=170)	$\beta = .03$	$\beta = .23^{**}$

\*\* $p <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와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의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성에 따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더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덜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를 덜 거부적이라고 지각한다고 한 Armentrout와 Burger(197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 연구(문경주·오경자, 2002; 오성심·이종승, 1982)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제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성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즉 여아에게는 친절하고 애정적이고 협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기를 기대하고, 남아에게는 지배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독립적이고 경쟁적이 되기를 기대함으로써(최경숙, 2000)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보다 딸을 더 온정·수용적이고 덜 거부·제재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동의 행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Burton, Phipps, & Curtis, 2002)에 근거하여 추론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비행과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 본 연구 결과는 남아의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가 남아에게 더 거부·제재적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아에게 덜 온정·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2.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행과 공격성, 그리고 이 두 영역을 합한 외현화 총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행동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면화 행동문제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아는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는 두려움, 걱정, 퇴행, 강박행동 등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구미향·이양희, 2003; 김민정·도현심, 2001; 박영미, 1996; 이양순, 198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아동의 성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현화 행동문제의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 중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만 일치하고 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 이는 남녀라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가 다르게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의 차이로 보면, 여아는 남아보다 더 감정적이며 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Brody, 1985), 남아는 외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Tannen, 1990) 남아는 공격,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보면, 부모들은 남아와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훈육방식에 있어서 남아에게는 육체적인 처벌이나 소리 치면서 훈육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언어적이고 설득적인 훈육을 함에 따라 남아의 공격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이양순, 1988). 또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남아에게 용감하고 남자다운 행동을 칭찬하고, 공격성을 허용하는 것과, 남아가 친구들이나 그 밖의 사회적 상황에서 공격성의 강화를 더 접하기 쉽다(김민정·도현심, 2001)는 것을 공격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에 따른 내면화 행동문제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다양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Reinert, 1976; 구미향·이양희, 2003; 박영미, 1996), 남아가 여아보다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김명식, 1988; 최현정, 2002),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권영옥·이정덕, 1999; 심희옥, 1997)들이 있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행동문제에 대한 자료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경우, 아동 자신이 더 정확하게 평정한다고 보고하는 선행 연구(Achenbach,

McConoughy, & Howell, 1987; 강명희, 2000)에 근거할 때 성차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로 남아와 여아간에 내면화 행동문제의 표출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이 보고를 하는 경우, 아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면화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아동은 자신이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고를 할 수 있다(Dadds, Perrin, & Yule, 1997). Dadds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점수가 높은 아동의 경우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불안 점수는 높게 나온 반면 아동이 보고한 불안 점수는 낮게 나왔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점수로 교사가 보고한 불안 점수와 아동이 보고한 불안 점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도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여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의도 때문에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행동문제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는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거부·제재 행동과 허용·방임 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영역 중 아버지의 거부·제재 행동, 허용·방임 행동과, 어머니의 거부·제재 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아버지를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가장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거부적인 행동은 아동의 위축, 과잉, 공격 등 모든 정서 부적응 행동과 상관관이 있다(박영미, 1996)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내면화 장애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부모의 통제와 과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부모의 돌봄과 따뜻함, 지지 등을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으며(Rubin & Mills, 1990; 오동재 등, 1993; 전성일·이정호·이기철·최영민, 1996), 부모에게서 거부적 태도나 엄격한 태도를 많이 받고 자랄 경우에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김민정·도현심, 2001; 박성연, 2002; 박영미, 1996; 이양순, 1988)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동의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 벌을 주고 학대하며, 위협하고 굴욕을 주는 등 애정을 주지 않고 거부할 경우, 아동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기대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모든 사람에게서 적대시되고

있다는 것만 배우게 된다. 따라서 아동은 끊임 없이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반항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며, 한편으론 죄책감을 갖게 되어 안정감이 없게 된다(김경희, 1999).

한편 부모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명령을 하고, 제재하는 것이 많을 경우 아동은 복종적이며 순종을 잘하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지만, 자주성·자발성·독창성이 부족하여 주체성이 결여되고 자신감이 없는 행동을 보이며 눈치를 살피고 의존적이 된다(김경희, 1999). 또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욕구좌절이나 분노를 누적시키게 되고 이러한 누적된 욕구좌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나며, 공격적인 모델을 제공하여 공격성을 조장하게 된다(김효정, 1991).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할 때, 아동은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 정서상태에 빠져 공격적이 되기 쉽다(Davies & Cummings, 1994).

본 연구의 거부·제재 요인에 포함된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감정적 혼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침해적 개입과 같은 행동들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각할 경우 아동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제재 행동 다음으로 허용·방임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돌봄이 부족하거나 과보호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불안, 우울 등의 성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문경주·오경자, 2002; 오동재 등, 1993; 유안진·서봉연, 1982)와 부모가 방임적일 경우 내면화 및 외현화 행

동문제를 많이 보이고 익애적인 경우 약물복용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가 맹목적으로 자녀에게 헌신하는 익애적 태도와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복종적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비활동적이며 수동적이고, 덜 공격적이고 소극적이고 겁 많은 성격으로 발달한다. 또한 신체가 허약하고, 신경질이 많고, 과민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불안한 성격을 보인다(김경희, 1999). 또한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아 애정도 없고 통제도 하지 않는 방임적 태도의 경우,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게 되고, 학업성취 면에서 뒤떨어지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Lamborn et al., 1991). 이런 두 경우 부모의 통제(감독) 부재로 아동은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또래와 쉽게 어울리고, 그러한 또래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Kim, Hetherington, & Reiss, 1999;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본 연구의 허용·방임 요인에 포함된 부모의 행동이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과 같은 행동들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각할 경우 아동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모양육행동의 개선을 통해 아동행동문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내용을 탐색해본 결과, 여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나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에 대한 지각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에게만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부적응 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박영미(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복종적 태도가 여아의 위축, 과잉, 공격 등의 정서부적응 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만 남아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딸보다 아들의 정서부적응 행동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들보다 딸의 정서부적응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Johnson & O'Leary, 1987; Kim et al., 1999; Verlaan & Schwartzman, 2002)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모의 허용·방임 행동에 포함된 행동이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과 같은 통제(감독)부재의 행동들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여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감독)가 여아의 행동문제 감소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 아동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내용을 탐색해본 결과, 남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나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에 대한 지각은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에게만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이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박영미(1996)의 연구에서 남아의 공격 행동은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와 부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온정·수용 행동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며, 자신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지각할 때 외현화 행동문제를 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즉 남아에게는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이 외현화 행동문제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해 각각 15%, 17%,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13%, 15%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자녀양육과 아동의 사회화가 어머니만의 역할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지각에 의한 아버지

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었으며 둘 간의 상관인 .49~.55로 높게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양육 행동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이 행동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일방향적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두 변인간에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 즉 아동의 행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Burton et al., 2002)고 가정해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방향적 관계를 가정하였을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만을 살펴보았으나 아동의 기질, 아동 자신의 자아개념(김영남, 2001),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사회인지(Guerra, Huesmann, & Spindler, 2003)와 같은 아동의 내적 요인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Verlaan & Schwartzwan, 2002)과 같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아동 성의 중재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아동 성에 따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이 아닌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실질적이며 아동 중심적인 정보를 얻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부모 한 쪽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또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합산한 것과의 관계를 살펴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각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아동에 대한 영향을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성의 중재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가 아동과 부모의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명희(2000).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아동·교사 평가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미향·이양희(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 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16(1), 341-363.
- 권영옥·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2), 115-133.
- 김경희(1999). 발달심리학-생애발달. 서울: 학문사.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영남(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천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유가효(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1), 33-43.
- 김형호(1978).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일 연구. *전주교대 논문집*, 제15집.
-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 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영미(199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 5(1), 49-64.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유용도 검증.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오동재·전성일·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

- 구노우트, 11(1), 서울: 행동과학 연구소.
- 유안진·서봉연(198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양순(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성일·이정호·이기철·최영민(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에서의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1), 34-43.
- 최경숙(2000). 발달심리학·아동·청소년기. 서울: 교문사.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McConoughy, S. H., & Howell, C. T.(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rmentrout, J. A., & Burger, G. K.(1972).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7(1), 44-48.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1,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rody, L. R.(1985).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 Burton, P., Phipps, S., & Curtis, L.(2002). All in the family: A simultaneous model of parenting style and child conduc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368-372.
- Dadds, M. R., Perrin, S., & Yule, W.(1997). Social desirability and self-reported anxiety in children: An analysis of the RCMAS lie sca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4), 311-317.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Gecas, V., & Schwalbe, M. 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Guerra, N. G., Huesmann, R., & Spindler, A. (2003). Community violence exposure, social cognition, and aggression among urb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5), 1561-1576.
- Hallahan, D. P., & Kauffman, J. M.(1978).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New York: Prentice-Hall.
- Hart, C. H., Nelson, D., Robinson, C., Olsen, S.

-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 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urlock, E. B.(1978).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family relations*. New York: McGraw- Hill.
- Johnson, P. L., & O'Leary, K. D.(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73-581.
- Kim, J. E., Hetherington, M., & Reiss, D.(1999). Associations among family relationships, antisocial peer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Gender and family typ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70*(5), 1209-1230.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752-768.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 1065.
- Noller, P.(1980). Cross-gender effect in the two-chil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157-160.
- Patterson, G. R., Babara, D., DeBaryshe,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Reinert, H. R.(1976). *Children in conflict*. Saint Louis: Mosby Co.
- Rothbarth, M. K., & Maccoby, E. E.(1966).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27-243.
- Rubin, K. H., & Mills, R. S. L.(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al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Smetana, J. G.(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299-316.
- Tannen, D.(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New York: Ballantine Books.
- Verlaan, P., & Schwartzman, A. E.(2002). Mother's and father's parental adjustment: Links to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in sons and daugh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3), 214-224.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1994). *Troubled families - 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2004년 6월 30일 투고: 2004년 8월 11일 채택